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mailto: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8-05-사무-04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전송일자 : 2018. 05.24(목)  
전송매수 : 총 6 매(별첨 포함)

###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별첨1]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맞이 행사 개최

- 1988년 창립 당시 회원 51명에서 1200여명으로 성장
- 각계각층 인사 참석 속에서 새로운 30년의 지향을 담은 결의문 채택
- 민변 30년사 책도 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5월 25일(금)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인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30년>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민변 회원 뿐 아니라 제 시민사회운동단체 인사들과 민변의 의뢰인이었던 당사자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서 민변의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하여 함세웅 신부, 기타 지낸 일본 자유법조단 변호사, 권인숙 교수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일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의 축사 외에도 민변 주요 변론사건의 내용을 발췌한 낭독회와 회원 변호사들의 노래공연, 그리고 향후 민변이 나아갈 지향과 가치를 담은 '결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민변이 30주년을 맞이하여 채택할 '결의문'에는 민변이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여섯 가지 핵심의제가 담겨져있다. 민변은 결의문을 통해서 인권단체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 법률가단체로서 사법개혁과 감시, 사회운동단체로서 시민과의 더 너른 소통과 연대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 개헌과 정치개혁, 재벌·노동·민생·교육 등 사회·경제적 개혁운동,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한 활동 지향도 분명하게 밝힐 계획이다.

○ 민변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민변의 역사를 정리한 <민변 30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한길로>(민변 30년사)를 이날 발간한다. 민변30년사에는 지난 30년 동안 민변이 공익소송·입법·사법·노동·민생·시민·평화·통일·과거사청산·여성·국제사회·환경 분야에서 활동한 역사의 기록과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한편 민변은 당일 행사에 앞서서 오후 3시30분부터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진 선임을 마무리한다. 2016년부터 활동한 정연순 회장과 강문대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김호철 회장과 송상교 사무총장이 새롭게 취임한다.

[별첨2]

## [민변 약사와 현황]

○ 민변은 1988년 5월 28일 정법회와 청변 두 모임에 속한 51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변호사단체다. 창립회원으로서 활약한 인권변호사들 가운데 김창국, 노무현, 유현석, 이돈명, 조영래, 조준희, 황인철 등 작고한 이들도 적지 않지만 김선수, 백승헌, 유남영, 이석태, 정미화, 최병모 등 여전히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창립회원도 적지 않다.

○ 현재 민변은 회원 숫자가 1180명 내외이며, 사법·국제연대·노동·언론·여성인권·통일·환경·미군문제연구·과거사청산·민생경제·교육청소년·소수자인권·국제통상·아동인권·디지털정보 등 15개 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두고 있으며 부산·대전충청·광주전남·전북·울산·대구·경남·인천 등 8개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부천서 성고문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사건,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의문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등 한국사회의 주요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다. 또 민변은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집단소송을 기획하였고 호주제 위헌심판 사건, 야간집회금지위헌사건 등 수많은 헌법소송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권 실현과 확대에도 기여해왔다. 최근에도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소송,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변론 활동을 넓히고 있다.

○ 민변은 1989년 <반민주 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역사비평사)를 발간하면서 일찍부터 입법감시 활동에도 개입했으며, 사법부개혁 및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일찍부터 입장을 마련하면서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이미 1992년에 UN자유권규약위원회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반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인권 및 국제연대활동에도 일찍부터 대응해왔다. 또 양심수 문제, 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해왔을 뿐 아니라 매년 12월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인권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 이처럼 민변은 초창기부터 변론, 입법감시, 국제연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인적 구성의 한계로 90년대까지는 시국사건에 관한 형사인권변론이 주요한 활동영역이었고, 공익소송을 기획하거나 입법운동 및 권력감시 영역까지 일상적으로 활동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 민변이 시민사회 활동가나 노동운동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단체가 된 것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공권력의 인권침해 감시와 접견, 변론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의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것이다. 이후 민변은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를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축으로는 시민 교육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출판물을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2016년에 출범시킨 상태이다.

○ 민변은 30주년을 맞이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회원 숫자가 1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하여 활동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회원 변호사들의 스펙트럼도 넓어졌기 때문에 내부의 소통과 조직의 유연한 운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깊어진 조직의 역사만큼 변호사 회원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선배 세대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혁신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민변은 역사가 어느덧 30년이 되었지만, 회원 중에 30%가 5년차 이하로 구성될 만큼 젊은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변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숙제로 던져진 셈이다.

[별첨3]

민변 30주년 행사  
포스터

**30**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30년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2018. 5. 25. (금)  
저녁 7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차례**

1. 민변 활동영상 상영
2. 개회 선언  
- 김선수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
3. 민중의례
4. 내/외빈 소개
5. 회장 인사  
- 김호철 회장(16대)
6.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7. 축사  
- 함세웅 신부  
- 권민숙 교수  
- 김생 평화나비 대표  
- 기타 지넨(Kita Zinen) 변호사 |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 안승원 변호사
8. 회원 낭독공연
9.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10. 회원 중창단 공연  
- '그날이 오면'  
- 뮤지컬 <RENT> 中 'Seasons of Love'
11. 결의문 발표
12. 다함께 촛불  
- '아침이슬'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